

한국 근현대 사회사 연구와 구술기록

오 유 석*

1. 근·현대 사회사연구자와 구술자료
2. 구술 기록은 무엇인가?
3. 구술기록으로서 「나는 조선노동당ियो」와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4. 새로운 역사 쓰기/읽기로서 구술기록
5. 결론을 대신하여

주제어 : 한국근현대사, 구술자료, 구술사연구서, 생애사, 구술기록

1. 근·현대 사회사연구자와 구술자료

확실히 20세기는 한국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격변의 세기’였다. 우리 모두는 ‘식민지,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추격근대화’라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을 겪으면서 신분질서의 급격한 해체, 민족분단, 대량동원, 대량학살, 대량수탈, 반공주의하의 집단공포정치와 군부권위주체제하의 집단 억압과 저항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 경험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고 집단마다 다르다. 어느 노역사가의 언명처럼 한국에서 20세기는 세계사의 격변 속에서도 가장 증폭된 ‘극단의 시대’(Hobsbawm, 1997)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일과 반일, 분단과 통일,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남과 북, 민주와 반민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극단적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한국인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오직 한 길만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오직 하나의 선택!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역사만이 기록되었다. 전체사, 구조사에서의 역사조차도 사회의 역사(history of society=사회사)는 오직 하나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또 하나의 역사는 왜곡하거나 은폐되거나 지워져 버렸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관한 한 아직 근현대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있었던 과거를 없었던 과거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종래의 역사 쓰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나오기 이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문헌중심의 역사쓰기에 대해 다른 반쪽

* 성공회대 연구교수

의 역사쓰기/대안적 역사쓰기로서 구술에 대한 진보적 비주류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의 주된 형태는 일종의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 그리고 거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소외된 역사 드러내기로서 구술자료(주로 구술 증언¹⁾)를 받아내고 그것을 실제 역사 연구에 응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비주류 소장 연구자들이 구술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다고 했지만 노력만큼의 축적된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이라는 구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사료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술자료를 쓴다 해도 단지 문헌자료를 보충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로 쓰여지다 보니 ‘기록’이나 ‘자료’로 체계화되어 남겨지기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일회성 목적으로 사용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연구자의 해석의 빈곤’으로 인하여 구술사의 목적 중의 하나인 ‘밑으로부터’의 대안 역사를 쓰기로서 지방, 여성, 노동자, ‘빨갱이’, 민중 등 다양한 소외자, 약자, 피지배자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구술사 연구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그러한 가운데 「나는 조선노동당ियो」와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과 같은 주목할 만한 ‘구술자료’가 출간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두 책은 구술사 연구서라기 보다는 구술자료 즉 구술기록에 더 가깝다. 구술자료는 연구자가 구술자의 구술성을 문자화하여 얻은 자료 즉 구술자가 연구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어진 구술을 채록·정리함으로써 만들어진 자료를 말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구술자서전(전기)과 같은 구술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의 구술기록은 구술자 개인 단독의 주관적 의지만으로 텍스트화 된 구술자서전과는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

이 글은 구술사 연구서나 구술자서전과는 다른 맥락에서 앞서 두 책에 담겨 있는 구술자료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평의 형식을 빌어 저서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그 가치와 의의 및 한계점등을 논의한 후 구술자료를 통해 앞으로 구술사 연구들이 생각해볼 만한 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석, 박사과정 시절부터 빈약한 현대사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술증언’을 이용하여 연구 논문을 써 왔던 필자는 그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구술사 연구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논의는 또 한명의 구술사 연구자로서로의 제한된 경험과 시각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

2. 구술 기록²⁾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역사(넓은 의미의)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특히 역사학자들이 가치를 ‘인정한’ 1차 자료로서의 ‘기록’은 ‘문자화된’ 언어<문서기록: 문헌사>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역사연구의 방법은 “문

1) 대표적으로 역사문제연구소가 계간지 ‘역사비평’을 통해 수년간 채록해 온 증언들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참조.

2) 필자는 문헌사료의 제약과 공백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구술을 채록·정리함으로써 새로운 근·현대 역사자료로 생산된 구술자료를 구술기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3) A. Marwick는 그의 『역사의 본질』이란 저술에서 문헌사가들이 활용하는 자료를 다음의 “합의된 위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1) 편지, 제보자 보고, 법정 기록, 2) 의회 또는 신문사의 보고서, 3) 사회조사, 4) 일기와 자서전 등이 그

서 없이는 역사도 없다”는 지나치게 좁고 엄격한 실증방식의 사관과 역사방법론을 통해 근대실증사학을 확립한 랑케(Leopold von Ranke)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나 중세 때 나온 많은 기록들은 ‘말을.....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구전되어 오는 구술을 문자로 기록하여 역사를 남겼다. 그러므로 말하기의 구술성은 최근에 와서 주목되고 있지만 사실상 기원전 수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다(윌터 J. 웅, 2000:30-51).

더구나 19세기까지 95%의 사람들의 역사는 ‘문자기록’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귀족계급, 성직자, 문벌가 등 극소수 계층만이 삶의 족적, 정치적 행동과 결정, 문화적 양태 등을 기록으로 남겼을 따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역사는 그 기록 속에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거나 그들의 시각에 의해 규정당해 왔다. 마찬가지로 한국역사를 보더라도 주류역사기록에 반하는 세력에 관련 문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빨치산 유격대 생활, 수많은 간첩단사건, 70년대 대규모 학생과 노동자들의 저항, 광주항쟁 등의 문자기록만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기 어렵다.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같은 전쟁터의 전투나 작전기록에서 “쫓병”들의 일상적 전투 경험, 전선 현장 기록은 물론 반전운동가, 징병 거부자, 사보타지, 수동적 저항에 관련된 기록도 문서기록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1980년 봄 대학캠퍼스에서, 자신들이 믿었던 삶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학문적 분위기에서 현대사 연구에 뛰어든 젊은 사회과학자들은 랑케가 제시하는 것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사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과거의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갈망했고 그 가운데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독재’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위로부터 가해진 폭력과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은폐되고 왜곡된 (밑으로부터의) 역사 드러내기로서 구술자료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관심주제에 따라 구술생애사, 구술 증언, 구술전기 등 다양한 방법의 구술사⁵⁾작업을 시도했고 그동안 전적으로 개인 연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얻어진 구술기록을 이용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도 꽤 많았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인류학자가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 현지체험과 구술을 바탕으로 한 윤택림(2003)의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을 종합한 황석영(1985)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일찍부터 귀한 구술자료를 모아온 출판사 뿌리깊은 나무가 편찬한 장인들의 생애 기록인 ‘민중자서전’(1991),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소위 종군위안부의 회고 구술기록, 99% 구술녹취를 풀어 쓴 이항규(2001)의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1)의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도 많은 다양한 전공자들에 의한 다양한 연구 성과⁶⁾들이 있다.

것이다. 이 위계는 그간 사학자들이 관행상 “객관”적인 기록으로 인식하여 자주 활용한 사료의 위계이다. 그러나 세련된 문헌사가들은 관행상 사료비판을 통하여 자료의 내적 일관성, 다른 기록과의 일치도, 맥락 분석 등으로 잠재적 편견을 점검하고 역사서술에 활용한다. 왜냐하면 형태가 어떠한 문서 그 자체에 정치적, 이념적 편향, 기록자의 주관, 과장 및 은폐가 생산 당시부터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기석·이규환:1998에서 재인용).

4) 구술자료란 스타(L.Starr)의 정의에 따르면(1984:4)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윤택림, 1994:276에서 인용). 그러므로 구술자료는 곧 구술기록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서, 구술자가 연구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으로 얻어진 자료를 말한다. 즉 단지 과거의 기억을 똑같이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공간적 조건에서 재구성되는 기록인 것이다.

5) 구술사의 명목상 정의는 간단하다. 구술(자료)에 근거한 역사 기술이 곧 구술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구조사, 전체사, 정치사의 맥락에서만 보아오던 한국근현대사를 개인사, 가족사, 집단사, 사회문화사, 미시사, 심성사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이며 단지 역사의 빈 공간을 대체하거나 메꾸는 것을 넘어 새롭게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구술기록을 통해 근현대사 연구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지평을 늘릴 수 있다는 의의로 인하여 최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주류학계에서도 구술사를 학문적 육성과제로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에 대한 역사연구가 가능한 모든 인접 사회과학분야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구술사 연구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⁷⁾

그러나 이러한 구술기록의 유효성과 그에 기초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술기록이 역사적 자료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가? 자료로서의 가치획득을 위해 어떻게 구술이 채록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며 논리적으로 답하기보다 필자는 위에서 지적한 두 권의 책을 검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 구술기록으로서 「나는 조선노동당원ियो」와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이 두 책은 모두 넓은 의미의 구술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저서의 구술자료획득과 활용, 구체적인 성격, 내용 그리고 각 저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술자의 역사적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저서에 대한 소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1) 「나는 조선노동당원ियो」의 내용, 의의 및 한계

이 책은 한 개인의 구술 생애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구술자인 김석향 선생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20세기 한반도의 독특한 역사사회적 조건 속에 형성된 개인의 삶이 무참히 짓밟힌 비전향장기수였다. 수형 생활 만 30년간 그는 0.75평의 독방에서 자신의 사상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 투쟁과 남한 감옥에 갇힌 다른 북한정치공작원들과 집단투쟁을 지속했다. 1991년 만 78세의 나이로 출소하여 살다가 2000년 9월 2일 다른 비전향장기수 62명과 함께 분단의 상징점인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

이 구술자료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식민지시기(I), 해방정국(II), 전쟁과 복구(III), “남조선 생활”(IV), 못다한 이야기(V)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을 받는 연구자의 작업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구술은 6개월간 총 24회 약 70시간동안 이루어졌다. 2차 구술은 2시간씩 총 1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그의 구술을 토씨하나 빼놓지 않고 문자로 옮기는 형식으로 구술기록을 편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후속연구자들에게는 구술을 통해 만들어진 1차 자료적 가치⁸⁾를 갖고 있다.

6) 가능한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는 구술방법론과 구술사 연구서들을 참고문헌에 달아 놓았다.

7) 예를 들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로서 경남대 북한대학원의 탈북자구술면접을 통한 북한지역연구,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의 1970년대 노동생활사연구,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소의 한국여성100년사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소 연구팀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한국 여성사를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3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8)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미국 구술사학회에서는, 구술테이프와 녹취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녹취문

채록자는 이 구술자료가 2가지 점에서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적고 있다. 여기 거의 그대로 옮겨 본다.(김석향구술/이항규녹취·정리, 2001: 15)

첫째, 이 구술기록은 20세기 남북 현대사에서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보충해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연구,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연구, 1970-80년대 한국의 감옥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중 북한연구는 늘 자료 부족에 허덕이는 학문분야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권력의 공고화 과정이나 권력기구의 형성과정에 대해 주목하지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민들의 삶에 대해 충분히 밝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기록은 한 ‘북한인민’(필자 강조)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사회를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은 북한의 공식문서들이 드러내지 않는 사회내의 갈등상황 즉 토지개혁, 지방 당내의 종파사건 등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이외에 당시 북한 여사상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증언도 충분하게 담고 있다.

둘째, 이 기록은 “김일성”시대를 살았던 한 당원의 가치관과 세계인식의 틀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구술기록은 진술의 이면에 있는 구술자의 의식을 드러내는 자료가 된다. 그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술의 논리적인 혹은 비논리적인 흐름, 그가 틀리게 기억하는 것들, 그가 강조하는 것, 후회하는 것, 은폐하고자 하는 것 등이 때로는 그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김석향 선생은 “노동당원”으로 살았고 당원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당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가 분석하는, 그가 묘사하는, 심지어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방식은 노동당원으로서 그의 의식을 드러내는 단서들이다.

흔히 구술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진술의 ‘주관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구술 기록의 가치는 그 ‘주관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술기록은 각자가 한 시대의 역사를 체감한 바로 자신이 경험한 역사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역사는 식민지, 해방, 전쟁, 압축근대화 등의 거시구조의 변동이 개인의 구체적인 생애에 미친 영향을 너무 등한시 해왔다. 그러므로 이 책의 큰 장점은 개인 생애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재구성해 보았다는 점이다. 생애사는 개인의 생애가 그 사회의 집합적 멘탈리티, 행위규범, 사건들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징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전체사나 구조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연구방법이다. 즉 구체적인 개인이라는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이 구술생애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주역인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인간적인, 각 사람의 삶 하나하나가 특별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 한권을 통해 역사에서 잊혀지거나 왜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동시대를 살아 왔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직도 냉전과 분단이테올로기에 갇혀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책이 이러

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의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녹취문이 구술자의 언어, 표현방식, 억양, 속도 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양자가 다른 한 녹취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연구자라면 반드시 구술자료를 테이프 상태로 듣고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집을 간행할 경우에, 문법적으로 정확한 언어로 고치고자 하는 유혹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석·이규향(1998)에서 재인용.

한 사람들의 기억을 열어 저마다 감추어 둔 역사를 생환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엄청난 시간과 정성의 투여가 결과한 상세한 구술기록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욕심을 내어 불만한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구술 생애사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론적 보완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구술 생애사는 개인에게 사회의 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구조적 조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유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인과 구조의 상호관계 읽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술기록을 통해 개인의 생애와 사회 또는 구조와의 관련성을 해명하고자 할 때 구술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연구자의 이야기도 구술사 연구의 명백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힐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연구자가 구술자의 주관적 해석을 의미화(혹은 사료검증을 통해)하는 작업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뒤편의 이 구술기록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자의 뒤편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1차 자료로서의 의미가 반감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내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다른 1차 자료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자료를 이용할 후속 연구자를 위해 이 기록을 채록하면서 연구자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 구술자의 체감온도뿐 아니라 구술과정 중간 중간에 연구자가 직접 느낀 연구자의 체감온도까지 읽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구술기록을 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다고 하지만 관심만큼의 성과가 없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기억’이라는 구술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구술에 대한 해석의 빈곤’으로 인하여 이 귀한 구술자료가 단지 문헌자료를 보충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로 쓰여 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잘못된 경우 오히려 개인의 역사가 구조의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

구술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구술기록자는 구술을 받아내는 일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그것을 실제 역사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구술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술기록이나 문헌기록이나 자료가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연구자의 문제인 것이다. 구술연구자는 기록하되 그것의 객관적인 설득력 있는 해석을 위해 분석 도구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구술자와 상호읽기를 통한 긴장관계를 멈추어서도 안된다.

2)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의 내용, 의의 및 한계

이 책은 8명의 각기 다른 구술자로부터 각기 다른 8명의 연구자가 받은 증언적 구술생애사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 온 경험을 연대기적으로 현재로 불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 생애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살아온 이야기 중에서 구술자가 겪은 현대사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의) 증언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술증언⁹⁾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도 연구자들은 구술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옮기는 서술형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앞서의 책과 다른 점은 구술자의 기억을 단선적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서도 특정 사건이나 기억에 있어서 연구자가 구술과정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란 절대적이고 정

9) 구술증언(oral testimony)은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4·3 항쟁에 대한 구술들은 대개 구술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 과거에 대한 현재적 해석임으로 이 부분에서 연구자의 의도된 질문과 구술자의 의지적 의식이 상호교차하여 구술자의 기억된 경험의 재현이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본래 이 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현대사자료팀과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구술자료 공모, 채록사업과정 중에 20세기 한국현대사의 막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발굴하여 증언을 채록하고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어 묻혀진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발굴 복원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자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일찍부터 주목하고 광범한 사전정보획득, 연구자들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책은 ‘구술자료총서 제1집’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구술자 8명은 연배의 차이가 있고 각기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지만 어느 분이나 일제 식민시기, 해방직후의 건국 활동, 전쟁과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분단을 몸으로 겪어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개인적 삶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분단’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어떻게 각 개인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선, 8명 모두 자신들의 삶에서 전환기적 사건이 될 만한 배경과 조건이 ‘해방과 분단’이었다는 점에서 생애이야기 서술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8명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삶의 지향과 과제를 ‘해방과 분단’에 두고는 있지만 그들이 처했던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존재양식으로 말미암아 같은 공간과 시간에 같은 사건을 겪었다 해도 다 같은 역사적 사실일 수 없고 다 같은 역사해석일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와 과거 경험에 대한 다양한 판본을 볼 수 있다. 즉 8명 모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과 분단’이 가한 남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삶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구조의 제약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행위’자로 살아 온 세상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도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개하는 삶의 내용이 매우 다채롭다는 바로 이점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보니(즉 식민지, 해방, 전쟁, 근대화 등의 거시구조의 변동이 개인 행위자의 구체적인 생애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있다보니) 그 개인이 그 거시구조의 변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전유하였는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즉 이 책에 실린 자료의 구술자 중에서도 어떤 분은 시종일관 개인적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활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끊임없이 반추하고 자신의 과거활동을 당시 사회 전체의 움직임과 연결시키거나 일체화하면서 구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의 생애와 활동을 구술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구술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구술하는가에 따라 자료의 사료적 가치로서의 충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필자 역시 한 연구서(진양교외, 2000)에서 서울토박이의 생애사를 다룬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구술자의 구술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의 생애사를 구술사의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했다. 가난한 식민지 아들로 태어나 직업상 일본군 군속으로 일하게 되어 운택한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에는 시류에 휩쓸려 건국에 몸 바치는 열혈 청년이 되었고, 우익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동원되어 국민방위군으로 전쟁을 치른 뒤, 장년기에는 이 땅의 보수민주세력에 가담하여 반이승만·반박정희

편에 서서 일생을 보낸 어느 서울토박이할아버지의 생애사는 하나하나가 유일하고 특별해서 존중받아야 하는 삶으로 평가될만했다. 그러다보니 이 생애사 자료에서는 구술자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현재의 해석만을 듣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좀 더 주의 깊게 충분한 준비와 관심을 갖고 구술을 진행했다면 이 구술자료에는 구술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동시에 그 해석에 대한 의미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꾸로 식민지, 해방, 전쟁, 독재시대라는 전체 구조사를 살아 낸 그 개인이 구조를 읽고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더 충실하게 구술을 받아 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구술자료를 통해 개인의 생애와 사회 또는 구조의 관련성을 해명하고자 한다면 연구자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자료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연구자가 구술 작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구술자의 증언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 물론 구술과정 중에 연구자의 직접적인 개입은 오히려 구술을 의도적으로 강요할 수도 있고 상호 교감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구술이 곧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구술 중에 연구자가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과 체감되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자료의 가치와 질을 높이려는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같은 질문이라도 때를 놓치면 그것은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억의 산물이 되기 때문이고 다른 구술기록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 중에서도 어떤 연구자는 단순히 구술을 듣고 청취하는 데 머무는가 하면 어떤 연구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구술자에게 구술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여 구술자료를 구술자와 연구자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어느 경우든지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문헌자료와 자신이 만들어 낸 구술자료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구자의 구술자의 해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4. 새로운 역사 쓰기/읽기로서 구술기록

구술성(Orality)은 구술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 구술의 특징은 그것이 문어가 아니라 음성언어(구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술은 구술되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구술은 상황적이기 때문에 구술이 누구에게,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은 구술자와 연구자의 관계와 개입정도에 따라 구술의 전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러한 구술기록은 개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특징 때문에 구술사학들이 구술의 역사적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역사연구나 다른 사회과학에서 구술자료는 아직까지도 사료적 자료로서 가치를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⁰⁾

10)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료적 가치의 문제는 구술기록 그 자체로부터 연유하기보다는 기록의 조심스러운 수집과 연구자의 분석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술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사실 구술 자료의 수집만큼이나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공식 역사를 대표하는 문헌자료라는 것은 대부분 그 시대의 가장 지배적인 동시에 특정인의 역사 기록일 뿐이다. 거기에는 평범한 피지배자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 그런 면에서 구술기록은 평범한 다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다수의 목소리들은 지배적인 사회적 담론 속에 침묵되어진 삶의 현실들이고 또 간과될 수 없는 사람의 역사 중 일부들이다. 그러므로 구술기록에 의한 자료는 문헌 중심, 과거 지배중심의 역사연구에 대한 도전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역사와 비공식적인 역사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밑으로부터의 역사쓰기와 읽기를 가능하도록 만든다. 구술기록 작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와 읽기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와 같이 극심한 이데올로기로 인해 역사의 반쪽이 유실되어 버린 경우에는 더욱 공식기록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구술기록의 채집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구술기록을 통해 공식역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사를 새롭게 발굴, 복원하는 자료이며, 굴절된 역사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며, 역사에 뒀던 길에 묻힌 다양한 사람,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역사쓰기와 읽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것은 녹음기, 캠코더 등 최근 발달한 기술문명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가능성이 커졌으며 쉽게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연구방법이다.(물론 예전에도 구전이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의 도움을 빌어 누구나 역사의 현장과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거나(사진, 영상등) 복원할 수 있다. 미국 쌍둥이 빌딩 911테러현장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구술기록을 통해 우리가 재구성하고자 하는 역사 쓰기/읽기는 추호도 오류없는 역사적 진실 그 자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굴절된 모습으로 투영된 인간의 채취가 배여 있는 역사를 세세한 수준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석형 선생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김일성시대’를 살았던 한 조선노동당원의 가치관과 세계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를 더 의미있게 분석할 수 있다. 즉 잘못된 기억, 은폐된 기억, 후회하고나 강조하는 기억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시대의식이 사실 전체사/구조사에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는지는 다시 한번 엿 볼 수 있다. 아무리 행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인간은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러나 구조의 제약이 아무리 강고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의지적으로 행위함으로써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의미규정 한다는 뻔한 진리인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는 평범함 속에서 인간 존재 한명 한명에 소중하고 평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부정확성, 주관성, 선택작용은 새로운 역사쓰기와 읽기를 위한 구술기록의 특징이지 구술기록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혹은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믿음과 신념이 김석향 자신을 그 오랜 수형의 생활에서 견디게 했고 그를 한국 현대사에 ‘비전향장기수’라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존재요 역사적 사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일성, 해방직후 북쪽 실상에 대한 그의 구술이 진실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진실’이며 그러한 기억과 믿음이 사실적으로 정확한 설명보다 수십 명의 ‘비전향장기수’라는 더 중요한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간행위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무엇보다도 구술자료의 분석은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구술자의 해석에 대한 해석이다. 연구자는 확실하게 구술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구술자의 주관적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연구자 자신이 그것을 토대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책임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기록에 덧붙여 구술기록을 통한 역사 드러내기를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를 과거의 화석 같은 존재로부터 깨워서 피가 통하고 숨결이 이는 살아있는 실체로 복원하고 생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원과 생환이야말로 문헌 속의 역사를 배우기보다는 살아 숨쉬는 역사를 배우는 자세일 것이다. 역사를 생환하고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그 시절을 어떤 형태로든 맞아서 걸어간 다양한 계급, 계층, 지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시절이 채워질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 새로운 역사쓰기와 읽기로서 구술기록과 구술자료의 목적과 의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하자면 현재 구술기록수집 실무를 담당하고 그것을 보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문서관리전문가들이 아니라 개개인의 연구자들이라는 점이며 각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물로서 구술기록들이 여기저기 알 수 없는 곳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구자의 개별적인 관심 주제에 따라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후속 연구자들이 구술기록을 함께 공유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제라도 문서기록만큼 귀중한 기록으로 구술기록에 대한 수집, 보관, 유지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